

오바스테야마(姨捨山) 풍습과 근대의 고령자 차별

The Ancient Custom 'Obasuteyama' and Modern Ageism

伊佐晴妃*

전남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Haruhi Isa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伊佐尚子**

KBC(Kokusai Business College)学園

未来高等学校

Shoko Isa

Mirai High School

Kokusai Business College

(초록)

일본은 다른 나라들보다 인구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고, 고령자 인구비율도 가장 높다.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심신의 건강을 상실하여 타인의 케어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재택케어이든 시설케어이든 케어의 질 저하로 인해 고령자가 차별이나 학대를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고대 일본에서 노인을 버렸다는 전설적인 이야기 '오바스테야마(姨捨山)'의 현상을 상세히 조망했으며, 이를 토대로 근대의 고령자 존중과 차별 문화를 비교했다.

주제어 : 고령자 차별, 오바스테야마, 고려장, 인구 고령화

(Abstract)

The population aging of Japan is to exceed all other countries, with Japan having the highest proportion of older adults. This have brought Japan to a number of social problems, and one of them is to increase elderly patients who need geriatric care year by year. It is unfortunate that many cases of elder abuse or ageism have been reported in Japan due to the low quality of care for elderly patients who were cared at home or at

* 주저자, 우 51186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석사과정생 伊佐晴妃(하루히 이사) (e-mail: halu.com133@gmail.com)

** 교신저자, 〒 900-0025 日本 沖縄県那覇市壺川3-5-3 学校法人 KBC(Kokusai Business College)学園 未来高等学校 沖縄学習センター 教務部長 伊佐尚子 (e-mail: shoko@ida.ac.jp)

long-term care facilities. While taking a comprehensive view of the Japanese legendary tale of 'Obasuteyama' phenomena that were told to discard older adults in the ancient society, the modern culture of respecting older adults compared with the phenomena of ageism in this paper.

Key words : Ageism, 'Obasuteyama', 'Go-Ryo-Jang', Population aging

I. 고령화 시대의 사회 문제

일본은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2010년도에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변모했다. 그러나 고령자 비율의 급속한 증가는 사회적 비용 지출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들에게 부담이 커지게 하는 등 사회제도의 붕괴까지 걱정하는 위기(aging crisis)를 맞고 있다(瀧沢茂男, 2013).

근래 대표적인 위기로 부각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는 고령의 상태에서 심신의 건강을 상실했을 때 케어[일본에서는 개호(介護)라는 단어로 표현하며, 본고에서는 개호와 케어를 병행하여 표기하고 있음]를 해주는 것과 관련된다. 과거에는 노부모와 함께 살던 자녀세대가 노부모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면 직접 케어를 해주거나 전문적으로 케어를 해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자녀가 노부모와 함께 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노부모의 집을 방문하여 케어를 해주는 일이 주말이나 휴일이 아니면 어렵고, 노부모와 동거를 하더라도 케어를 직접 담당하는 여성들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케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노부모만이 살더라도 케어를

직접 담당하는 배우자도 이미 건강이 약화된 노인이라서 케어의 질이나 케어의 현실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요양시설에 입소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노인요양시설에도 드러난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小山泰代, 2001; 西本真弓・七条達弘, 2004; 広橋容子, 2010).

집에서 가족이 케어를 할 때 고령자 케어에 관련된 사건이나 사고가 자주 뉴스로 보도되고 있다. 케어를 담당하는 가족이 고령자를 학대하거나 심지어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며, 간혹 케어를 담당하는 가족이 케어를 받는 고령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케어와 관련해서 고령자가 그와 같이 학대의 피해자가 되는 원인은 고령자 자신이나 가족, 환경 문제 등 다양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케어로 인한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佐々木明子・山田皓子・桂晶子, 1999; 城佳子, 2011).

일본에서는 케어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고령자일 때 고령자(노인)가 고령자의 케어를 맡고 있다는 의미로 노노개호(老老介護)라고 부르고 있다. 노노개호에서 케어 임무를 일차적으로 떠맡고 있는 자들의 80% 이상이 배우자이지만, 그 상태에서 자녀가족과 별거하는 고령자들의 일부는 케어를 필요

로 할 때 자녀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노개호의 책임을 맡은 고령자는 수면시간도 부족한 상태로 하루 내내 케어에 얹매이면서 피로감의 누적과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겪고, 케어를 받는 자에게 학대행위를 가할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는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고령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많지 않고, 정보가 부족에서 복지서비스의 활용도 제대로 못하고, 병세도 악화되어 케어로 인한 부담이 더 커지면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羽生正宗, 2010; 堀田和司・奥野純子・深作貴子・柳久子, 2010).

집에서 고령자를 케어가 어려울 때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일본은 고령자 인구가 증폭해서인지 케어를 원하는 노인환자 수에 비하여 시설의 수가 부족하여 입소를 원하는 대기자 수가 수 백 명에 이르는 시설도 있을 정도이다. 또 시설을 이용하는 고령자들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시설의 구조가 고령의 환자만이 기거하는 1인실 형태로 바뀌다보니 직원 혼자서 개별적으로 케어를 할 때, 물론 친절할 직원일 경우에는 문제가 아니지만, 학대를 하더라도 다른 직원들에게 노출되기가 어렵다. 역시 남이 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질이 높은 케어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등 케어의 질 확보도 쉽지 않은 등 윤리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 게다가 그러한 시설에서는 노인환자가 다른 환자들과 서로 대인관계를 하는 것이 어렵고, 고령의 입소자가 케어를 받는 약자의 입장이어서 또 오랫동안 입소를 기다리다가 운이 좋

게 입소했기 때문에 케어의 질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을 스스로 표현하기가 어렵다(広橋容子, 2010).

케어 서비스의 질이 높은 시설기관도 있지만, 보통사람들은 고비용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쉽게 선택・이용하지 못한다. 일본은 현재 건강 때문에 케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빈곤하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고령화 시대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노후를 가난하게 보내고 있어서 일본에서는 그들을 ‘하류노인(下流老人)’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에 해당되는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빈곤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젊어서부터 노후 연금을 준비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연금을 잘 준비했던 세대임에도 빈곤한 노인이 생기는 원인은 노인인구가 증폭하게 된 시대적 상황 그리고 이에 따라 연금수령 등이 더 어려워진 실정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로 보면, 미래의 일본은 지금보다 노인의 빈곤 비율이 더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된다(岡村重夫, 1970; 鷺尾香一, 2017).

고령의 상태에서 건강하지 못하면 또는 건강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가족이나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의 고려장처럼 고령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과거 일본의 고령자 차별 풍습을 조망했는데, 이는 근대적인 맥락에서의 고령자 차별 현상과 비유하면서 고령화 시대의 사회 문제를 지적하기 위함이었다.

II. 오바스테야마 풍습

일본의 나가노(長野)현 북부 치쿠마(千曲)에 있는 카무리키야마(冠着山, かむりきやま)라는 산을 오바스테야마(姥捨山(おばすてやま)이지만, 일부 문학 작품에서는 姥捨山(うばすてやま, 우바쓰테야마)라 표기되기도 함]라고도 부르는데, 옛날부터 이 산은 달의 명소로 유명하다. 오바스테야마가 달과 관련된다는 이야기는 여러 노래나 설화집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헤이안(平安)시대(794-1185) 전기에 발표된 한 노래집(古今和歌集)에 수록된 것을 비롯하여 헤이안시대 중기에 발표된 한 소설(源氏物語, 紫式部 著), 그리고 헤이안시대 후기에 발표된 작자미상의 한 설화집(今昔物語) 등에 그 내용이 들어 있다. 곧 서술하겠지만 오바스테야마는 글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여성 노인(姥)을 버린다(捨)는 의미가 담겨있음에도 근자에는 그 의미와 상관없이 달의 명소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밤에 달을 보러 이 산을 찾고 있다(大谷義博, 1961).

요즈음에는 생의 후반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고령자를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흔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덕행이었던 동양 문화권에서 과거에 노부모를 버린다는 이야기가 왜 생겨났을까? 가장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근본 원인은 빈곤이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가난으로 인해 가족을 버리는 일이 노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특히 에도(江戸)시대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이나 갓 태어난 아이를 죽이는 마비끼(間引き)라는 풍습도 있었다. 가난한 시절에는 노인이나

아기가 부담으로 여겨져 버리기도 했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까지 행해진 풍습이었다. 이와 같은 풍습은 먹고 살아가야 할 식구를 줄인다는 의미로 구찌헤라시(口減らし)라고 명명되었다. 당시에는 빈곤으로 인해 생산연령층에 해당되는 식구만 살아남아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수단이나 일상적인 행위이었겠지만, 이런 일이 지속되는 시대적 상황에서는 잔인하다는 느낌 대신에 부담이 되는 자들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塚田美雪, 1992).

그렇다면 구전되어 왔던 오바스테야마(姥捨山)는 어떤 내용이었는가? 이는 일정한 연령에 달한 노인 또는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진 노인을 생활이 어려울 때 식구를 줄이기 위해 산에 버린다는 옛 이야기로 원래 10세기 중반 작자미상의 설화집 야마토모노가타리(大和物語)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설화집에서는 과거 시나노(信濃: 현재 나가노현)라는 나라의 일부와 현재 나가노현 북부의 치쿠마(千曲)시의 일부였던 사라시나(更級)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한 남성이 아내의 권유로 백모(伯母: 생모는 아니지만 어머니 역할을 하고 계신 분)를 산꼭대기에 버린 후에 산(姥捨山)에 떠오른 밝은 달을 보며 노인을 버린 것에 대하여 마음이 아파서 다시 그 노인을 데리러 갔다던 이야기를 노래로 적고 있다. 그 산이 달구경으로 유명한 것도 이러한 이야기가 와전된 것과 관계된다(上条裕二, 2017; 菅原敬三, 1987).

그와 같은 상태의 노인을 산에 버리는 행위가 일본에서 실제로 법적으로 가능했던 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그런 일이 발생했었는지 또는 일부 지역에서만 있었던 일이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이야기는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서 확인되고 있다(工藤茂, 2009). 오바스테야마(姨捨山)의 전설이 일본에서 전승되어 왔던 이야기가 아니라 해외로부터 전해진 이야기라는 설도 있다. 예를 들면, 8세기의 만요수(万葉集)라는 노래집에 나와 있는 전설(竹取翁棄老伝説)은 오바스테야마처럼 산에 노인을 버리러 가는 이야기인 중국 효자전의 원곡(原穀) 기로전설과 형태가 같다. 또 다른 전설(難題棄老伝説)도 중국의 다른 전설(孔子曲玉伝説)과 유형이 같은데, 이 전설은 인도의 경전 등에 있었던 것으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전설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예로 불교경전 잡보장경(雜寶藏經)의 기로인연(棄老因縁)편에 노인을 버리도록 하는 옛날 인도의 기로국(棄老国)이라는 나라의 설화가 나오는데, 이는 노인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인도 동화에도 나오는데, 그러한 연유로 오바스테야마(姥捨山)와 같은 이야기의 원전은 인도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고 추론되기도 한다(大谷義博, 1961; 上条裕二, 2017).

그러나 늙은 부모를 버리려고 산에 갔다가 나중에는 다시 부모를 데리고 오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의 이야기와 오바스테야마 전설에 차이가 있어서 모두 해외로부터 전해진 이야기라고 말하기 어렵다. 일본에 전해지고 있는 노부모를 버리는 전설은 크게 네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① 난제(難題)

유형, ② 부모를 지계에 지고 버리는(親棄て畚) 유형, ③ 노파치부(老婆致富) 유형, 그리고 ④ 가지 꺾음(枝折り) 유형이다(工藤茂, 2009).

우선 난제 유형을 보면, 어떤 나라에 일정한 연령에 달한 노인을 버려야 된다는 법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나이가 많은 어머니를 버리지 못하고 집에 숨겨 두고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어느 날 이웃나라에서 어려운 문제를 보내오면서 이를 풀지 못하면 침공하러 온다고 했는데, 아무도 풀지 못한 문제를 숨어서 살고 있었던 어머니가 풀어서 해결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때부터 나라에서는 노인을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다(工藤茂, 2009). 이 이유형의 이야기는 노동력이 약해진 노인을 가족이나 사회에 가치가 없는 존재로 인식했다가 나중에 결과 달리 삶에 대한 풍부한 경험에 때문에 노인의 지혜가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노부모를 지계에 지고 버리는 유형 이야기로 한 남성이 늙은 아버지를 버리려고 지계에 지고 산으로 갈 때 그의 아들도 같이 따라가서 상황이 바뀐 내용이다. 그가 산속에 지계와 함께 아버지를 버리고 산을 내려가고 있는데, 아들이 다시 할아버지를 버린 곳으로 가서 지계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자 아들에게 왜 지계를 가져왔느냐고 물어보니 나중에 아버지가 늙으면 할아버지처럼 내가 아버지를 지계에 지고 산에 버리기 위해서라고 대답하게 된다.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다시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왔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일본의 서부지역에서는 전해져 왔던 반면에 동부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또 이러한

내용과 유사한 이야기가 인도로부터 전해져왔을 것이라고 추측되기도 하지만, 유럽이나 중국, 한국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왔다(工藤茂, 2009). 이 이야기도 효에 관한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바로 자신이 노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여야 아들도 자신에게 효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또 이 이야기는 다른 유형의 오바스테야마 이야기와 약간 다른 점은 있다. 오바스테야마 이야기 등 다른 유형에서 버리는 노인의 성별은 여성(姉가 姥로 표기되기도 함)이었지만, 지게에 지고 버리는 유형의 이야기는 남성 노인이었다는 점이다.

셋째, 노파치부 유형의 이야기는 어떤 마을에 한 부부가 시어머니와 셋이 살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매우 사이가 좋지 않아서 항상 싸우게 되었는데, 어느 날 며느리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산에 버리기만 하면 돌아올지도 모르게 때문에 산에 오두막집을 만들어 가두고 불을 지르라고 요청한다. 처음에 이를 반대했던 남편은 아내의 뜻에 거역하지 못하고, 결국 어머니를 데리고 산으로 간다. 그곳에서 오두막집을 지어 가두고 어머니에게 며느리의 기분이 좋아지면 모시러 온다고 말하고 오두막집에 불을 붙이고 가버린다. 그러나 할머니가 죽기 싫어서 오두막집에서 뛰쳐나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걱정할 때 아기도깨비들이 찾아와서 함께 놀았다. 아기 도깨비들은 시간이 흘러 돌아가야 될 상황에 이르자 할머니에게 함께 놀아주어서 고맙다면서 요술방망이를 주고 갔다. 할머니는 이 방망이로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었는데, 곧바로 집도 사

람도 마을도 돈도 모두 얻어 부자가 되었다. 나중에 할머니가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며느리는 할머니처럼 산에 오두막집을 만들어 갇힌 채로 불을 질렀지만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것이다(松谷みよ子, 2011). 이 이야기는 일본 전역이 아니라 일본 본토의 남쪽이나 북쪽 끝 지역(青森현, 岩手현, 鹿児島현)에서만 전해지고 있다(工藤茂, 2009). 이 이야기는 노부모를 버리는 행위가 잘못이며 또 그 잘못에 대한 대가로 벌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욕심이 많은 며느리가 죄를 받는다는 내용은 한국의 흥부전을 연상시켜주고 있다.

넷째, 가지 꺾음 유형은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버리려고 산속으로 가는 도중에 어머니가 걸어가면서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버리고 가셨다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아들이 어머니와 헤어지려고 하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버린 이유를 묻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집을 찾아갈 때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해주려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아들은 그 대답으로부터 감동을 받아 다시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가서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아마도 이 이야기가 노인을 버리는 기분이었는데, 나중에 난제를 푸는 노인 이야기 등이 더해지게 되었다고 한다(工藤茂, 2009).

이 유형도 앞의 유형들과 유사하게 단순히 노인을 귀찮은 존재로 여겨서 버리는 이야기로만 이해하기보다도 자식을 아끼는 부모의 마음이나 노인의 지혜 등을 토대로 노인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이해하는 교육적 의미를 담고 있다. 곧 오바스테야마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버리는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근본

적으로는 사람들에게 효도의 중요성을 권장하고, 노인의 지혜와 가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는 사상은 다른 나라에도 전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모든 선행 중에서 효가 가장 중요하다는 가르침(百善孝為先)이 있을 정도로 효도가 중요시되고 있다(Wan, 2016).

III. 고령자를 바라보는 근대적 관점

고대에도 나이가 든 사람을 존중하는 풍습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최소한 중세 귀족사회로부터 40세가 된 시점부터 10년마다 축하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와 같이 연령의 단락을 짓는 시점마다 열리는 장수를 축하하는 일은 현대사회에서도 회갑(回甲), 고희(古稀), 희수(喜壽), 미수(米壽) 등의 형태로 계승되고 있다. 오바스테야마 전설에도 소개되듯이 노인들이 나무토막을 보고도 어느 쪽이 뿌리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뱀의 암수를 분별하는 방법도 알고 있고, 또 지혜를 후세에 전달하는 사후에는 신이 된다는 믿음도 전해지고 있다. 노인을 신처럼 여겼다는 점은 노인을 존중하는 중세의 관점임을 보여준 것이다(松井富美男, 2006).

근래 일본에는 경로라는 가르침이 있고, 실제로 국민의 경축일로 경로의 날이 제정되기도 했다. 경로의 날은 오랫동안 사회에 공헌해 왔던 고령자를 공경하고 장수를 축하하고, 고령자의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갖게 하고, 또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날이다

(萌文書林 編集部, 1998). 고령화 사회로 변모하면서 서구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와서 노인을 공경하는 차원에서 노인 또는 조부모의 날이 제정되기도 했지만, 일본은 그 역사가 서구에 비해 더 오래되었다. 일본에서 경로의 날을 제정한 배경을 보면, 처음에는 1947년 효고 현의 한 마을(兵庫県多可郡野間谷村; 현재의 多可町八千代区에 해당)에서 ‘노인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노인의 지혜를 본받아 마을을 가꾸자!’면서 노인의 날을 제창하게 되었다. 이 마을에서는 1년 중 날씨가 좋고 농사일로 바쁘지 않은 시기인 9월 중순(15일)을 노인의 날로 정해서 경로회를 개최했다. 그러다가 3년 후인 1950년부터는 효고 현 전체 지역에서 경로회가 개최되게 되었고, 1951년에는 중앙사회복지심의회(中央社会福祉審議會;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후생노동성에 관련된 사회복지사업 전반의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기구임)에서 9월 15일을 노인의 날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때 노인을 표현할 때 늙은이라는 의미를 지닌 ‘토시요리(としより, 年寄り)’라는 단어로 표기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각지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1963년 노인복지법의 제정과 더불어 노인의 날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노인의 날을 표기할 때 “年寄り”가 “老人”으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노인이라는 단어도 어조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 1966년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면서 노인의 날을 경로의 날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고, 이 날이 국민의 축일의 하나로 추가되었다. 경로의 날은 2002년도까지는 9월 15일이었지만, 2003년도부터는 일부 경축일을 월요일로 대체하는 happy

Monday제도 제도에 의해 경로의 날이 9월 셋째 월요일로 옮겨서 주말에 이어서 연휴가 길게 해주었다. 일본에서의 경로의 날은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장된 경축일이 된 것이다(川口謙二·池田孝·池田政弘, 1997; 森幹朗, 1983).

이렇게 노인을 이해하는 관점이 긍정적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정책도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여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노인의 지방 이주 정책이다. 그러나 이는 아직 고령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즉 의료(요양 보호) 체제가 준비가 미흡한 편이다. 또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대책으로 지방에서 인구가 감소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를 위하여 수도권 고령자들을 지방으로 이주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있다. 이러한 대책도 역시 노인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즉 체력이 쇠약하고 적응력이 낮은 노인이 오랫동안 살고 있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환경에서 살아갈 때 받는 스트레스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다(菊森淳文, 2016).

IV. 고령자 케어

전술했듯이 일부 학자들은 오바스테야마 풍습이 이야기로 전해졌지만, 일본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러 문화권에서 기로에 관련된 전설이나 풍습이 존재했으며, 일본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고 말하기가 어렵다. 일본의 경우 노인을 바라보는 또는 대하는 관점이 크게 식로(食老)에서 살로(殺老), 기로(棄老), 은거(隱居)를 거쳐 노인복지의 순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도 기로 풍습이 있었는데, 645년도 발생한 한 정변(大化の改新) 이후에는 사라졌다고 본다. 그 이유는 그 시기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귀족들이 등장했고 또는 당시 일본에 전래된 불교의 가르침에 의해 기로의 풍습이 숨겨져 살도록 하는 형태(은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노인에 대한 처우가 과거 버림(棄)에서 은거라는 이름의 보호 형태로 변한 것이다(須田圭三, 1987).

오바스테야마와 같은 이야기는 살아가기가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물론이고 인도나 인도, 중국, 한국 등에도 존재하는 이러한 이야기로부터 인종이나 민족에 상관없이 사람의 같은 심리를 엿볼 수 있다(塚田美雪, 1992). 근래에는 살아가기 힘든 노인들도 노인보호법의 시행으로 시설기관에 입소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런데 그 보호 비용을 나라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시설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좋지 않아서 직원들이 입소 상태의 노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과거의 기로 풍습과 맥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須田圭三, 1987). 시설기관에 입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더라도 최근에는 빈곤노인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선진국으로 달리고 있는 일본이지만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처럼 노후를 가난하게 보내고 있어서 ‘하류노인’이라고 부르는 빈곤노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금을 잘 준비했던 세대임에도 빈곤한 노인이 생기는 원인은 노인인구가 늘어난 현재의 환경 그리고 이에 따라 연금 수령 등이 더 어려워진 문제 등 때문이다. 노인의 빈곤 비율은 점점 상승하는 것이 일본의 미래 문제가 되고 있다(岡村重夫, 1970; 鷲尾香一, 2017).

근대 일본의 노인복지제도 역사는 짧지 않다. 노인인구비율이 5.7%이던 1960년대에 시작되어 1970년대에는 노인들의 의료비를 무료 화해서 안심하고 병원에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후에도 노인 환자, 특히 와상노인이 늘어나서 의료비가 폭등하게 되었는데, 1980년대에 들어와 노인인구 비율이 9%를 넘게 되자 시술 등이 아니더라도 케어 등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환자들이 장기적으로 입원하면서 병상이 부족한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 1990년대에는 그 비율이 12%에 달하여 지금까지 해왔던 시설에서의 케어가 재택케어로 이행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滝沢茂男, 2013).

시설 입소의 경우 특별양호노인홈은 케어를 받으면서 장기간 생활하는 시설이다. 그 반면에 개호노인보건시설은 재활치료와 함께 케어를 받으면서 재택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데, 일반적으로 이는 3-6개월 정도 이후에 퇴소하는 조건으로 이용하므로 입소가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개호노인보건시설을 이용하는 자도 거의 대부분 퇴소한 이후 집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집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지 못해 상태가 다시 좋지 않아서 다른 시설을 찾아 입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西浦公朗, 1999). 시설에서는 케어를 받을 때 어려움

은 모두에서 지적했듯이 케어의 질이 높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재택 케어의 경우 가족들의 케어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2000년대 개호보험이 시행되고 있지만(滝沢茂男, 2013), 노인환자가 발생할 경우 케어가 매우 힘들다. 자녀와 노부모가 동거할 경우 노인환자가 발생할 때 배우자가 개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호는 대부분 며느리나 딸 등 여성의 역할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족 중에 개호를 요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노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가 별로 없어서 노인 단독세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근래에는 재택 케어에도 노부모와 별거 상태에서 케어를 한다는 ‘별거개호’ 그리고 주말에만 노부모를 방문하여 케어를 한다하는 ‘주말개호’라는 용어도 생겼다. 이것은 과거에 비해 가족의 케어 기능이 저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小山泰代, 2001; 西本真弓・七条達弘, 2004).

자녀가 노부모와 동거하든지 별거하든지 상관없이 노인을 집에서 케어를 할 때 케어 업무를 맡은 자들의 부담은 적지 않으므로 그들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개호보험에서도 케어 업무를 맡는 사람에 대한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城佳子, 2011). 특히 노노개호 세대가 재택개호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개호자의 건강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개호시간의 경감이나 수명시간의 확보 등 물리적 지원(예: respite care service)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羽生正宗, 2010; 堀田和司・奥野純子・深作貴子・柳久子, 2010).

고령자 존중에 관한 마지막 사안으로 연명

치료에 관해서 짧게 서술하고자 한다. 고령의 말기환자가 요양을 필요로 상태에서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 있기만 할 경우 서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연명치료를 더 이상 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노인병원에서 환자가 그와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비율은 약 10% 정도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90%는 가족들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연명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편이다. 후자처럼 연명을 시켰을 경우 어떠한 방법에 의존했는지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8-18개월 정도 연명시켰지만, 그 기간 동안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스트레스가 매우 심했다. 역시 환자도 이러한 방법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른다(小坂陽一・佐藤琢磨・藤井晶彦・佐々木英忠, 2008). 이런 맥락에서 일본도 이제는 존엄한 죽음에 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일본에서는 고령자를 대하는 관점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고대사회에서 기로가 은거가 바뀌었고, 근대에도 은거가 복지로 말이 바뀌어졌어도 내용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는 뜻이다. 고대사회에는 은거가 노인을 굶어죽도록 버리는 대신에 목숨을 구하는 방안이지만, 생존만 가능한 상태의 삶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러한 모습이 근대에도 보이고 있는데,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젊은이들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조용히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근대사회의 은거라고 할 수 있다. 고령자에 대한 복지의

개념이 은거 형태라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앞으로는 고령자들의 여생에 대한 권리가 사회적 역할이나 활동 등을 토대로 한 진정한 복지 차원에서 고려 또는 보장되어야 한다(上条裕二, 2017).

첨언하건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있는 고령자 문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오바스테야마와 같은 노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맥락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고령자도 자립생활이 가능한 사회 구조를 확립해야 하는데, 고령자에 맞는 직업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국민성은 상호의존을 특징으로 하므로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滝沢茂男, 2013). 단순히 고령자에게 일자리만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의 상태에서도 전문직 역할을 수행하면서 책임감도 가질 수 있는 사회 구조가 필요하다(広橋容子, 2010). 그래야 연령에 따른 차별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

참고문헌

- 大谷義博 (1961). 姨捨山伝説考. 東京: 東洋大学国文学研究室.
- 岡村重夫 (1970). 老人福祉の意味と範囲についての考察. 日本老年医学会雑誌, 7(4), 239-241.
- 川口謙二・池田孝・池田政弘 (1997). 年中行事・儀礼行事. 東京: 東京美術.
- 菊森淳文 (2016). 地方への高齢者移住とホスピタ

- リティ. *日本ホスピタリティ・マネジメント学会誌*, 26, 41-47.
- 工藤茂 (2009). 現代文学における“姨捨”の系譜 (四): 二つの“姨捨山.” *別府大学国語国文学* (別府大学国語国文学会 出版), 24, 1-11.
- 小坂陽一・佐藤琢磨・藤井晶彦・佐々木英忠 (2008). 高齢者終末期医療への提言. *日本老年医学会雑誌*, 45, 398-400.
- 小山泰代 (2001). 世帯内外の老親介護における妻の役割と介護負担. *人口問題研究*, 57(2), 19-35.
- 佐々木明子・山田皓子・桂晶子 (1999). 在宅療養高齢者の介護者の介護負担感に関連する要因. *埼玉県立大学紀要*, 1, 117-121.
- 上条裕二 (2017). 南方熊楠の‘棄老伝説に就て’を口語訳にしてみた. 上条武術研究所(<https://ameblo.jp/mojikita-wrestling-club/entry-12275259276.html>).
- 城佳子 (2011). 家庭介護者のストレス・マネジメント. *ストレス科学研究*, 26, 8-13.
- 滝沢茂男 (2013). 持続可能な超高齢社会の構築: 活動報告. *厚生福祉*(時事通信社 発行), 5157, 2-8.
- 菅原敬三 (1987). 教材研究と教材の扱い方(3): 大和物語第百五十六段“姨捨.” *文教国文学* (広島文教女子大学国文学会 出版), 20, 56-62.
- 須田圭三 (1987). 往時より現在に至る老年者処遇の変貌: 食老, 殺老, 棄老, 隠居, 老人福祉. *民族衛生*, 54(3), 102-122.
- 滝沢茂男 (2013). 持続可能な超高齢社会の構築: 活動報告. (時事通信社 発行) *厚生福祉*, 5157, 2-8.
- 塚田美雪 (1992). 棄老伝説“姨捨山”の伝承と民衆思想. 長野: 上田女子短期大学(平成3年度卒業研究佳作).
- 西浦公朗 (1999). 大都市近郊にある老人保健施設入所者の家庭復帰に関連する要因について. *日本老年医学会雑誌*, 36(7), 479-488.
- 西本真弓・七条達弘 (2004). 親との同居と介護が既婚女性の就業に及ぼす影響. *季刊家計経済研究*, 61, 62-72.
- 羽生正宗 (2010). 老老介護の現状分析. *山口経済学雑誌*, 59(4), 303-341.
- 広橋容子 (2010). 看護の視点から見た高齢者ケアの課題: 当事者への聞き取り調査から. *国際研究論叢*, 23(3), 189-199.
- 堀田和司・奥野純子・深作貴子・柳久子 (2010). 老老介護の現状と主介護者の介護負担感による関連する要因. *日本プライマリ・ケア連合学会誌*, 33(3), 256-265.
- 松井富美男 (2006). 日本人の古い観-古い文化の底流を求めて. *広島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論集*, 66, 17-33.
- 松谷みよ子 (2011). *読んであげたいおはなし(下): 松谷みよ子の民話*. 東京: ちくま文庫.
- 森幹朗 (1983). *政策視点の老年学: 対策の盲点*.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 鷺尾香一 (2017). 完全に“詰んだ”貧困高齢者が爆増する: 職なし貯蓄なし年金なしの三重苦. *President online* (2017. 07. 25.) (<https://president.jp/articles/-/22652>)
- 萌文書林 編集部 (1998). *子供に伝えたい年中行事*. 東京: 萌文書林.
- Wan, Y. (万毅) (2016). *少子高齢化が急に進*

한국노년학연구, 제27권 제2호

む中国で義務化された‘親孝行.’ nippon.com
[2016. 10. 15. (<https://www.nippon.com/ja/features/c02805/>)].

원고접수일: 2018. 09. 16.
수정 원고접수일: 2018. 10. 29.
원고게재승인일: 2018. 11. 14.